

모바일이 불탑을 불상화했다

주수완 한국미술사학 책임연구원, 불탑신앙의 변천에 주목



중국에서 초기불상의 예로 중요한 허버트대학 프크 미술관 소장품의 금동불좌상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문화는 인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많은 부분 인도 불교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전과 과정에서 동아시아 불교문화는 인도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탑신앙과 불상신앙이다. 인도에서 사원의 중심은 불탑

이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그 중심이 불상으로 옮겨졌다. 불상은 어떻게 불탑의 신성성과 존엄성을 계승하게 됐을까. 그 과정을 오늘날 문화콘텐츠 사업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며 주목할 필요가 있어 눈길을 끈다.

주수완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월 11일 열린 동양미술사학회 창립학술세미나에서 불탑신앙이 불상신앙으로 전개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부처의 사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대승불교적 사고방식이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주 연구원은 불탑과 불상에 대한 변모를 인도인의 추상물에 대한 선호와 동북아인들의 현물에 대한 선호 차이로 들고, 이와 함께 물질적인 숭배물 없이 그 위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신앙의 발달이 불상신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고대시대 불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하나의 신전 역할을 했다. 인도의 스투파는 그 정통성을 아소카 왕이 8만 4000개의 탑을 세운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실제 진신사리를 갖고 있지 않은 중국은 설화를 만들어 불탑을 만들지 사리신앙의 정통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주 연구원은 “하지만 그런 정통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화를 점차 복제가 가능한 불상으로 옮겨갔던 것”이라며 “복제된 불상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화도 함께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이러한 신앙 변천은 현대에서도 많

은 시사점을 준다고 주목했다.

주 연구원은 “불교는 분명 외래 종교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완전히 전통종교를 자리를 잡았다. 중국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인위적으로 전방을 만들어 낸 것은 불교의 토착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주 연구원은 “중국불교가 전통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간 것을 볼 때 그들이 공들여 했던 작업은 지금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도 될 정도로 매우 성공을 거둔 거대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큰 규모의 불탑은 각 지역의 포교에 용이하지 않아 점차 작은 규모의 불탑으로 변해갔고 불상이 이를 대체해 왔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미술사학회의 창립세미나에서는 중국 불탑 및 불교미술관련 발제가 이어졌다.

주 연구원의 발제에 앞서 강병희 한양대 문학박사는 “중국의 불탑은 인도, 간다라, 서역불교의 것을 답습했지만 노자의 사상을 함께 모시는 등 격의불교의 형상을 띠었다”며 “이는 중국만의 독특한 발전상”이라고 말했다.

강 박사는 “중국에서 왕복불 사상 아래 불상과 황제를 동일시 하는 경향도 불전의 규모를 키우고 상대적으로 불탑에 대한 인식 약화를 불러왔다”며 “남북조 후기에는 완전히 불전이 중심을 이루는 사찰배치로 변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경허 스님의 行化는 배우지 말 길”

한암 스님의 ‘경허집’ 출간 안된 이유, 학술대회서 밝혀져



토론에서는 한암 스님이 <경허집>에서 경허 스님의 행화를 후학들이 따르지 말 것을 말한 배경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한국선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법제자 한암 스님(1876-1951)의 손으로 엮은 <경허집>가 평창 월정사로 돌아온 이후 처음 열린 한암 사상연구회 학술대회, 대회에서는 한암 스님의 <경허집>이 출간되지 않고 세상을 떠돌게 된 이유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졌다.

1930년 만공 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서찰을 보내 부탁을 해 한암 스님 나이 56세인 193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직접 스승의 행장을 찬술하고 법어와 시 등을 엮었다. 하지만 이는 출간되지 못했고 1943년 만해 스님이 선학원에서 펴낸 <경허집>에서도 언급이 빠진다.

평창 월정사와 한암문도회가 6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경허선사와 한암선사’란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선 <경허집> 편찬과 관련된 선종의 차이와 그 계승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한암 스님의 <경허집>은 선학원판보다 12년 앞서 선학

원판의 저본이 났을 것”이라며 “선학원판에 한암 스님 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경허 화상의 법화(法化)를 배움은 옳으나 (무애행으로 유명했던 경허) 화상의 행화(行化)를 배우면 안된다’는 문구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경허 스님이 자유로운 선승이었다면 한암 스님은 전형적인 선승이었다”며 “한암 스님이 경허 스님의 높은 안목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교단을 생각하는 고민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경허 스님의 행적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어 만공 스님의 입장에서 출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암과 만공 스님의 행적을 짚으며 그 차이점을 고찰하는 발제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는 평창 월정사 회주 현해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50여 명이 참석해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노덕현 기자

“원래 육식금지 계율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남궁선 박사, 선리학술연구회 새 생태운동 주장

“근본불교와 대승불교 시대를 가리자 않고 불식육 조항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바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다. 불식육 조항의 근본 목적은 불살생의 자비정신에 있다. 이런 사려깊은 식생활을 살리는 것이 현대 불교인들의 과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에 함께 갔다. 안주가 나왔다. 돼지고기 숙주 무침이다. 당신은 오계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불자다. 숙주만 골라 먹을 것인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먹을 것인가.

한국에서 일상 생활에서 계를 받은 재가불자들, 아니 모든 불자들이 고뇌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고뇌를 현대적인 과제로 부각시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남궁선 동국대 박사는 6월 14일 열린 제5회 선리학술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불교 불식육계의 생태학적 고찰’을 주제로 이와 같이 주장했다.

남궁선 박사는 먼저 근본불교에서 불식육계의 계율에 대해 주목했다. 남 박사는 “불교에서 불식육은 어느 경우에만 꼭 지켜야 하는 계율은 아니었다. 고기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먹을 수도 있는 하나의 음식물로 보다는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맛에 탐착하거나 즐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것은 불식육계를 범한 사람에게 재물을 내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참회함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바일제를 적용시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인간의 체질적 특성과 자비심 함양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불식육계를 운영했으며 생태계의 자연스런 흐름에 따른 식생활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 박사는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에서 드러나는 불식육계 계율의 폭이 좁아지는 이 계율이 잘 지

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잡식성인 인간 본연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남 박사는 이런 특성에도 불식육계가 등장한 배경을 강조하며 새 생태·먹거리 운동을 펼칠 시기라고 주장했다.

남 박사는 “불식육계는 이런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도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그 실천 목적은 바로 불살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육식과 채식의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불식육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생이 가급적 적게 일어나고, 맛을 위해 동식물을 잔혹히 사용하는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 박사는 이를 위해서는 “생태적 8만 계계를 새로 제정해 한달에 6일 만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는 불식육일을 불자들이 앞장서 스스로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또 실천 가능한 생태계(生態戒)를 제정해 실천에 옮기는 일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단신>

■ 동국대 경주캠퍼스,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초청 특강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중) 사회과학대학원(원장 박병식)은 6월 14일 백상관 컨벤션홀에서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전 동국대학교 총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송석구 위원장은 “21세기의 행복 여행”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꾸뻏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행복해 지는 비결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천태종 제4차 한중 학술포럼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6월 15일 오전 10시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와 함께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白馬寺)에서 제4차 한중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불교교육과 사회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한국측에서 권기중 원각불교사상

연구원장이 ‘불타와 교육’을 기조발제하며 최홍석 금강대 교수가 ‘불교의 승가교육과 승려의 사회적 역할’, 김상현 동국대 교수가 ‘불교의 신도교육과 사회발전’, 천태종 교육부장 세운 스님이 ‘천태종의 교육이념과 신도교육’을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불교예술학술대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6월 4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불교의 예술, 심리 그리고 깨달음’을 주제로 제1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화제의 신간

춘하추동

한국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흔히 3박자가 맞아야 대운길격(大運吉格)이라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의 3박자는 무엇인가?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일년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이 4계절은 각 3개월씩 나누어져 운명의 흐름이 각각 달라진다. 당신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며, 그 계절의 운세의 흐름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할까?

사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 / 21C 신개념 행복 부자되는 사주팔자

■ 甲長慧印 이준용 지음 / 신국판 / 340쪽 / 정가 20,000원

육임이 보인다 | 이계 풍수사 | 육표학 핵심비결

공헌 지음 / 4x6배판/양장본/70,000원 | 신국판/성재권 지음/75,000원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건 | 그림 당사주 대전

김백민 편자/신국판/양장본/50,000원 | 4x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자/양장본/2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4권·8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하권은, 고구려법에 의해서 태고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재물 손에 잡히도록 알기 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승함으로써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깨닫는 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① 권 鄭田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② 권 鄭田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2쪽 / 정가 30,000원

누·구·나·일·계·이·해·목·토·금·수·불·연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술 !!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 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 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공학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 2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론

신국판/양장본/신형 지음/26,000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 기간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